

SeAn Magazine.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매거진
2021년 가을 (Autumn)

세안그룹 정기발행 매거진 Vol.3

걸으면서 느끼는 가을
'RE100' 알고 계세요?
면역력을 키우는 좋은 습관, 바르게 걷기
신조어로 알아보는 2021년
명불허전! 고전영화를 소개합니다.

...SEAN...



Contents

01 걸으면서 느끼는 가을 (1) 남한산성 (2) 서울 한양도성 (3) 제주 올레7코스	_____	Page 4
02 'RE100' 알고 계세요?	_____	Page 14
03 면역력을 키우는 좋은 습관, 바르게 걷기	_____	Page 16
04 신조어로 알아보는 2021년	_____	Page 17
05 명불허전! 고전영화를 소개합니다.	_____	Page 20

교수신문에서 뽑은 2019년 올해의 단어 '공명지조 (共命之鳥)
공명지조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새를 가르킨다. 불교경전에 따르면 공명조의 한 머리가 맛있는 열매를
먹는데 다른 머리가 이것을 질투하여 독이 든 열매를 먹게 되고 결국 독이 온몸에 퍼져 둘다 죽게 된다.
2020년 올해의 단어 '아시타비 (我是他非)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라는 뜻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속에서도 우리사회 전역에서
소모적인 투쟁과 대립이 만연한 현실을 보여준다
2021년은?
공명지조와 아시타비가 하나가 된 것 같다. 같은 몸에 있는 머리 두개가 각각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며 싸우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공명조의 두 머리처럼 정신없이 싸우다가 안타까운 결론에 다다를까 두려워진다
1990년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내 탓이오" 운동이 그리워지는 것은 왜일까?

[여행]

걸으면서 느끼는 가을
남한산성



과거 한양을 지키던 요새 중 하나인 남한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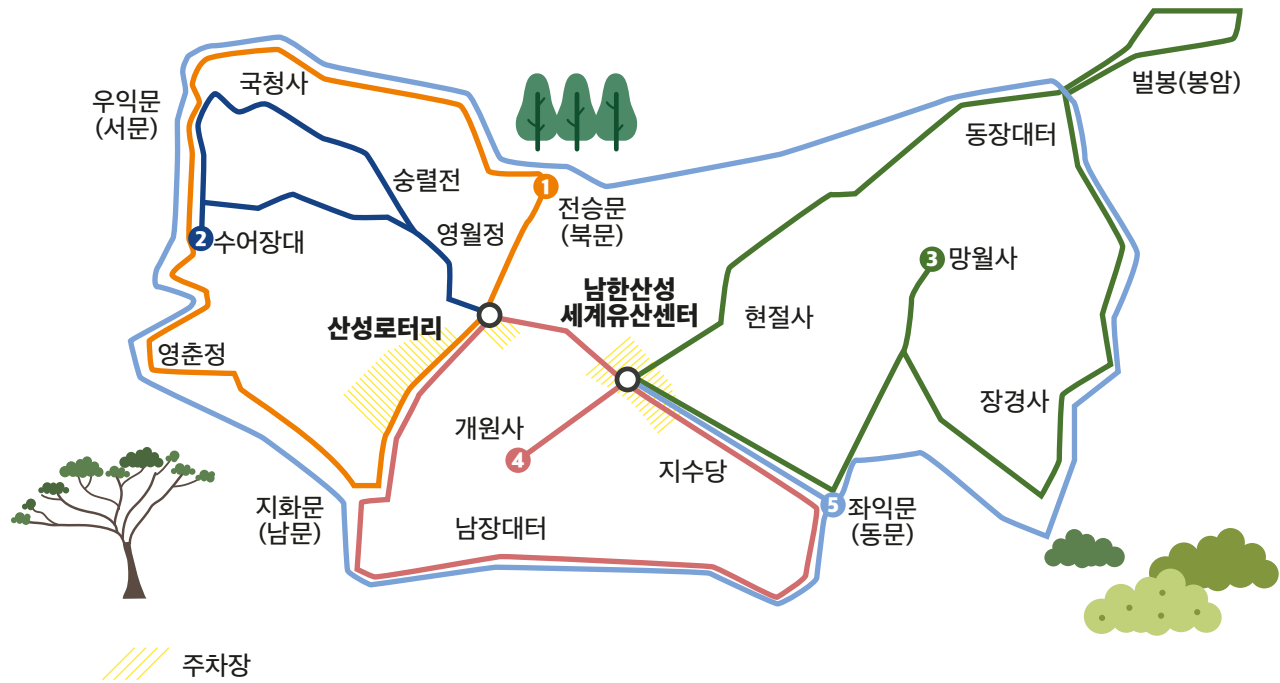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아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소중한 우리나라 유산입니다. 남한산성은 지형적으로 험준한 산세를 이용하여 방어력을 극대화한 곳으로 전쟁 시 백성과 함께 왕이 대피하던 장소였습니다. 특히 인조 14년 (1636년) 청나라가 침략해오자 왕은 이곳으로 피신하여 47일이나 항전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조선의 국왕과 한양을 지켜내고 든든한 방어벽이 되어 준 남한산성, 무수한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곳곳이 견디어 냈던 남한산성을 거닐며 역사가 주는 교훈을 다시금 되새겨봅시다.



📍 남한산성

남한산성에는 테마별 다양한 탐방코스가 있습니다. 서둘러 완주하고 싶은 마음에 빠른 걸음으로 재촉하면 숨만 차고 멋진 광경을 놓치기 쉽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유 있는 발걸음으로 시작해보아요.
개개인의 체력과 시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의 남한산성을 체험해보세요.

남한산성 테마별 탐방코스



구분	테마	거리	소요시간	난이도	특징
제1코스	장수의 길	3.8km	80분 소요	중	방어요새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코스
	산성로터리 > 북문 > 서문 > 수어장대 > 영춘정 > 남문 > 산성로터리				
제2코스	국왕의 길	2.9km	60분 소요	하	왕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 장소들을 만날 수 있는 코스
	산성로터리 > 영월정 > 송렬전 > 서문 > 수어장대 > 산성로터리				
제3코스	승병의 길	5.7km	120분 소요	상	남한산성을 지켰던 승병들의 생활을 알아볼 수 있는 코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 현절사 > 벌봉 > 장경사 > 망월사 > 동문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제4코스	웅성의 길	5.7km	120분 소요	중	남한산성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했던 선조의 고민을 볼 수 있는 코스
	산성로터리 > 남문 > 남장대터 > 동문 > 지수당 > 개원사 > 산성로터리				
제5코스	산성의 길	7.7km	200분 소요	상	남한산성의 성벽을 두루 볼 수 있는 탐방 코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 동문 > 동장대터 > 북문 > 서문 > 수어장대 > 영춘정 > 남문 > 동문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백년의 시간을 담은

남한산성 백숙거리

남한산성 성곽 내 산성리 마을에 위치한 백숙거리는 약 70여개에 이르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2~3대 째 백숙집을 운영하며 100년 동안의 전통과 맥을 이어온 토박이 맛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선한 닭과 오리 그리고 성 안에서 나는 갖가지 재료들로 백숙거리만의 특유의 맛을 유지하고 있으니 안 가보고는 못 배길 거예요.

추천맛집

남한산성 백숙거리에서 먹는 능이닭백숙, 더덕구이, 도토리묵은 역시 특별합니다. 요즘엔 트렌디한 카페들도 많이 생겨서 맛있는 커피와 팔빙수도 놓칠 수 없어요.



함지박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남한산성로 731-15

도토리묵, 능이버섯백숙, 더덕구이

전화 : 031-744-7462



가배산성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43 가배산성

커피, 팔빙수

전화 : 031-749-0743

[여행]

온몸으로 느껴보는 서울 역사

서울의 상징

송례문에서 시작하는 한양도성 탐방

한양도성은 조선왕조 도읍지인 한성부의 경계를 표시하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를 위해 축조된 성을 말합니다. 태조5년(1396년) 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의 내사산 능선을 따라 축조된 후 여러 차례 개축이 되었답니다. 평균 높이 5~8m, 전체 길이 18.6km에 이르는 한양도성은 전 세계의 도성 중 가장 오랫동안(1396~1910년/514년) 도성의 기능을 수행한 서울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한양도성 남삼구간 탐방

국보 제1호인 송례문은 매일 아침 4시에 문을 열고, 매일 밤 10시에 성문을 닫으면서 조선시대 사람들과 하루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송례문에서 한양도성 (남삼구간) 탐방을 시작해볼까요?



서울의 상징 "송례문" 에서 시작하는 한양도성 남삼구간. 바라보기만 했던 송례문을 바로 앞에서 마주하니 그 웅장함에 긴장하게 됩니다.



눈 앞에 펼쳐지는 계단이 두렵긴 하지만 올라가다 보면 서울의 아름다움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세련된 빌딩숲과 성곽의 대비되는 조화가 인상적입니다. 밤에 오면 더 멋있다고 하니 데이트 코스로 추천해요!



열심히 올라가면 백범광장과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도착합니다. 서울의 하늘을 만끽해보세요.



표지판을 열심히 따라가세요. 서울한양도성 탐방, 어렵지 않아요.



반가운 남산타워 그리고 남산 팔각정. 시원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국립극장 방면으로 다시 전진!



남산타워에서 국립극장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세요.



국립극장



반얀트리 호텔로 들어가세요. 이 구간은 출입가능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여기서부터는 서울 시민들의 삶에 한층 더 깊숙이 스며있는 남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충체육관 방면으로 내려오면서 남삼구간은 끝!

한양도성 전도

4대문을 따라 형성된 한양도성

계절마다 그리고 밤낮으로 달라지는 서울의 모습을 우리 함께 걸으면서 느껴봅시다.



한양도성(사적 제10호)은 한양을 둘러싼 4개의 산(백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 능선을 따라 평지, 산지 및 구릉지를 연결하여 축성한 18.6km 도성이다.

한양도성 동서남북 4개의 대문(흥인지문, 돈의문, 송례문, 숙정문)에는 유교의 4가지 마음가짐인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대응시켜 이름을 붙였다.

내사산의 물길이 청계천에 모여 동쪽으로 나가는 곳에 오간수문(五間水門), 목역산에 흘러내린 물길이 나가는 곳에 이간수문(二間水門)을 설치하였다.

한양도성은 20세기 초 일제강점기와 도시화 과정에서 파괴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13.7km 성벽과 6개의 성문, 1개의 수문이 보존되어 있다.



QR코드를 통해 한양도성 가이드북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송례문 ~ 남산 (목멱산) 구간 숙소 추천



관광, 비즈니스 모두 최적화

호텔 아트리움 바비엡2

서대문역을 도보 30초면 돌파할 수 있는 호텔 아트리움 바비엡2는 관광, 비즈니스 등 모든 방면에 매우 편리한 교통을 제공한다. 또한 전 객실 주방과 세탁기 설치로 불편함없이 이용할 수 있다. 특유의 넓은 객실은 당신에게 공간적 여유와 정서적 휴식을 안겨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소 : 서울 중구 통일로 114 전화 : 02-3413-9341



소중한 반려견과 함께하는 호캉스

라마다호텔앤스위트 서울남대문

시청역, 서울역, 서대문역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라마다호텔앤스위트 서울남대문은 1인에서 최대 4인까지 함께 투숙 가능한 다양한 타입의 객실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투숙할 수 있는 애견친화적인 호텔로 당신의 모든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다. 서울역과 남산을 내려다볼 수 있는 24층 리에나 레스토랑에서는 맛있는 조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주소 : 서울 중구 칠패로 27 전화 : 02-775-7177

세안 매거진 독자 여러분을 위한 Autumn Coupon

CODE: 397945-51240000

GIFT VOUCHER

10,000원 할인

호텔 아트리움 바비엡2
라마다호텔앤스위트 서울 남대문

사용처 : 세안호텔그룹 통합예약사이트
 사용기간 : ~ 2021.12.31 까지
 사용방법 : 세안호텔그룹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쿠폰을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등록해주세요
www.seanhotelgroup.com 접속 > 회원가입 > 마이호텔 > 나의쿠폰 > 쿠폰등록하기

*선착순 100명까지 쿠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타 쿠폰과 중복사용은 불가합니다 *쿠폰등록시 숫자와 함께 *-* 도 같이 입력해주세요 *아이디당 해당 쿠폰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예약취소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객실금액에서 할인되며, 추가금액 (음선선택)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행]

걸으면서 느끼는 가을

해녀의 강인함과 낭만을 보다. 제주 올레 7코스

제주 올레 여행자센터를 출발하여 법환포구를 경유해 월평까지 이어지는 해안 코스
외돌개와 자연생태길인 수봉로를 지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태풍을 만나는 곳, 법환포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법환포구는 제주에서도 해녀가 가장 많은 어촌으로 해녀들의 삶과 문화가 생생하게 보존되고 있는 곳입니다. 예로부터 용천수가
곳곳에서 솟아나고 있어 해녀들이 빨래하는 모습을 아직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범섬과 새끼섬을 따라 열심히 걷다 보면 해녀마켓이 있는데 매주 토요일에 ‘마켓’이 열립니다. 해녀들이 직접 잡은 뽕소리를
판매하기도 하고 아기자기한 수공예 작품과 버스킹 공연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 일찍 방문하면 해녀들이 직접 미역을
채취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장소입니다. 검고 단단한 해녀들의 피부, 나이 따윈 신경 쓰지 않는 씩씩함 그리고
동지에 속에 싹 트는 그들만의 문화를 보고 있으면 강인함과 낭만의 조화가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해녀마켓을 뒤로 하고 야자나무가 늘어선 길을 따라 켄싱턴리조트를 지나면 카페 스스룩이 나타납니다. 맛있는 커피를 마시며
돌고래의 등장을 기다리며 바다를 보고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항구 ‘월평포구’가 나타나는데,
특유의 아늑함 때문인지 올레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제주의 살아있는 유산 ‘해녀’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제주 올레 7코스! 같이 가보실까요?



올레 7코스



외둘개



법환포구



해녀마켓



카페스르륵



월평포구

법환포구 근처 숙소 추천



연인, 가족, 친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주 웨스턴 그레이스 호텔

매년 여름 태풍이 오면 취재진들로 붐비는 법환포구, 제주 웨스턴 그레이스 호텔은 이 법환포구에서 차량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호텔 인근에는 이마트 서귀포점, 스타벅스 서귀포DT점, 맥도날드 DT점이 있어 여행 중 편리함을 더 할 수 있다.

제주 웨스턴 그레이스 호텔의 깔끔하고 콤팩트한 객실은 가성비비를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투숙객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라운지, 북라운지, 키즈존은 고객들이 이 호텔을 찾는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정문화로27번길 9-7 (강정동) 전화 : 064-738-7777

재생에너지 100% 시대에 들어서다

지옥같은 더위가 유럽을 덮쳤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의 기온이 역대 최대인 섭씨 48.8도까지 치솟았으며 계속된 폭염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소방대원들의 사투에도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스는 최악의 화재로 서울 1.7배의 면적이 불탔다. 터키에서는 산불로 12만 헥타르가 잿더미가 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100년만의 폭우라 불리는 대규모의 홍수가 발생하였다. 심지어 시베리아 마저 무려 780만 헥타르 (우리나라 넓이의 78%정도)가 화재로 온통 잿더미가 되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북극까지 산불 연기가 덮쳐버린 것이다.

이쯤 되면 기후변화 그리고 그 피해가 더 이상 교과서, 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미 우리의 생활 깊숙이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기의식을 먼저 인식한 유럽에서는 2021년 6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55% 감축하겠다' 라는 내용의 '2050 탄소 중립 의무화' 기후법을 채택했다. 더불어 세계 최초 '탄소국경세' 를 제안하였다. 이는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등 유럽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2030년부터 신규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21년 대비 55% 줄이고, 2035년부터는 100% 줄이도록 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미국도 기존의 감축목표를 2025년까지 2005년 수준 대비 50~52% 감축하는 것으로 상향 조절하였고 한국에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압박하고 있다.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기업의 탄소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허용된 배출량을 넘긴 기업에게는 무거운 세금, 수출 규제 등 각종 불이익이 적용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초과 배출한 기업은 탄소배출 잉여허용량을 가진 타 기업에게 탄소배출권 판매를 요청하고 있다. 이것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라고 한다. 높아지는 규제 강도 속에 탄소배출권 가격은 폭등하고 있으며 이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은 아예 탄소를 적게 사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기 시작한다.



들어는 봤나? RE100 (Renewable Energy 100%)

상당수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하였다.

RE100은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된 것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이다. RE100 가입 기업은 2021년 1월 기준 미국 (51개), 유럽 (77개), 아시아 (24개) 등 총 284곳에 이르며 2018년 이미 애플, 구글 등 30개 기업은 100% 목표를 달성하였고, 95%이상 달성한 기업도 45개나 된다.

유럽의 경우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위해 각종 지원으로 재생에너지의 단가를 낮추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유럽 기업들의 RE100 선언 및 목표달성이 유리해졌다.

한국형 RE100?

우리나라의 기업은 RE100 선언이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의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는 한국전력을 생각해보자. 한국전력에서 공급하는 에너지는 무차별적으로 제공되어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원자력인지, 수력인지, 풍력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 또한 모든 에너지는 한국전력을 통해서만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기업이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재생 전력을 구매할 방법도, 인증할 방법도 현재는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자체가 적다.

삼성전자는 이미 해외 사업장의 경우 RE100을 선언하고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다. 우리나라 공장에서만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과거 BMW가 LG화학에 부품 납품 전제조건으로 RE100을 요구하면서 계약이 무산되었으며, 애플도 반도체 납품 물량을 놓고 SK하이닉스에 RE100을 맞출 것을 요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이 RE100 도입 추세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무역장벽이 될 것이라는 것은 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기업간 전력 직거래가 가능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한국전력 역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들의 RE100 선언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감 때문일까?

세계자산운용사에 ‘기후변화 행동주의’ 라는 바람이 불고 있다. 이것은 연금, 기금 등 다수의 고객을 보유한 자산운용사들이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않은 기업이나 국가의 주식은 매도하겠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BLACKROCK의 주주서한 (기후변화리스트가 곧 투자리스트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의 자본 재배분이 이어질 것이다) 을 들 수 있다. 주가에 민감한 글로벌 대기업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RE100 선언 및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우리나라에서도 RE100 선언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SK그룹은 그룹 최초로 RE100을 선언하였으며, 한화큐셀 국내 사업장, LG화학, 현대차그룹 5개사 등이 있다.

이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한다는 것은 그 협력업체들도 RE100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곧 모든 산업 전반에 걸친 큰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올라타라. RE100

국내 모든 기업들이 RE100을 선언,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주는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건강, 건강할 때 지키자 면역력을 키우는 좋은 습관

가장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걷기 운동
하지만 무작정 걷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올바르게 걷는 방법, 따라해보세요.

바르게 걷는 방법

1. 어깨를 바르게 펴고 가슴은 하늘을 보듯 열어주세요.
2. 고개를 정면, 살짝 위로 향합니다.
3. 뒤통치가 먼저 땅에 닿고 발의 바깥쪽에 있는 발가락들이 땅에 닿도록 합니다.
발의 안쪽이 먼저 땅에 닿으면 다리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 발바닥 아치 모양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4. 그 후 발의 가장 안쪽에 있는 엄지발가락이 땅에 닿으면 반대편 발을 떼어낼 준비를 합니다.
5. 8자 걸음을 방지하기 위해 발가락과 무릎, 골반은 같은 방향으로 향해주세요.
6. 보폭은 평소보다 조금 넓게 해주세요.



신조어로 알아보는 2021년

사회 현상이나 트렌드를 반영해 만들어지는 신조어. 코로나19로 지속된 불황 속에 어느때보다 뜨거웠던 주식시장 그리고 멈출 줄 모르고 상승하는 집값과 강력한 부동산 정책들로 개인간 생활수준의 양극화가 심해졌다.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를 통해 이런 실상을 느껴볼 수 있는데 웃기면서도 한편으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2022년에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신조어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2021년도 하반기

신조어 탐구영역

영역

취준생

다음 신조어의 뜻을 서술하시오.

1) 이태백

2) 면까물

3) 삼일절

4) 금 턴

5) 청년실신시대

6) 취가/취집

2021년도 하반기

신조어 탐구영역

영역

주식

다음 신조어의 뜻을 서술하시오.

1) 영 끝

2) 동학개미

3) 따 상

4) 상따, 하따

5) 손 절

6) 익 절

2021년도 하반기

신조어 탐구영역

영역

사회

다음 신조어의 뜻을 서술하시오.

- | | | |
|----------|----------|------------|
| 1) 군 싹 | 2) 머선129 | 3) Whyrano |
| 4) 억 텐 | 5) 스불재 | 6) 얼죽아 |
| 7) 당모치 | 8) 주 불 | 9) 완내스 |
| 10) 만반잘부 | 11) 복세편살 | |

2021년도 하반기

신조어 탐구영역

영역

부동산

다음 신조어의 뜻을 서술하시오.

- | | | |
|---------|---------|---------|
| 1) 슬세권 | 2) 맥세권 | 3) 벽세권 |
| 4) 청무피사 | 5) 대팔대사 | 6) 선당후곰 |
| 7) 마용성 | 8) 금관구 | 9) 노도강 |
| 10) 수용성 | | |

문항 번호	취준생 영역 정답표
1	이태백 : 이십대 태반이 백수
2	면까몰 : 면접은 까보기 전까지 모른다
3	삼일절 : 31세가 되면 절망한다
4	금턴 : 금수저처럼 뒷배가 없으면 갈 수 없는 양질의 알짜인턴
5	청년실신시대 : 청년 '실업자' + '신용불량자' 의 합성어
6	취가/취집 : 취업대신 장가가거나 시집간다
문항 번호	주식 영역 정답표
1	영끌 :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티끌까지 끌어모아 모두 주식에 투자한다
2	동학개미 : 급락하는 주식시장에서 개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는 현장을 동학농민운동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3	따상 : 공모가 2배에 시초가가 형성된 뒤,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
4	상따, 하따 : 상따는 상한가 종목에 투자하는 것, 하따는 하한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5	손절 : 본인이 산 주식보다 가격이 떨어졌을때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행위
6	익절 : 본인이 산 주식보다 가격이 올랐을때 수익을 보고 파는 행위
문항 번호	사회 영역 정답표
1	군씩 : '군침이 싹 도는' 줄임말
2	머션129 : '이게 무슨 일이지' 를 사투리로 표현한 말
3	Whyrano : '왜 이리지'를 사투리로 표현한 말
4	억텐 : '억지+텐션' 의 합성어 평소 반응(리액션)이 아닌 억지로 반응을 격하게 하는 것
5	스불재 : '스스로 불러온 재앙'의 줄임말
6	얼죽아 :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줄임말
7	당모치 :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 의 줄임말
8	주불 : '주소 불러' 의 줄임말 / 보통 택배 보낼때 "야, 주불!"
9	완내스 : '완전 내 스타일' 의 줄임말
10	만반잘부 :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의 줄임말
11	복세편살 :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의 줄임말
문항 번호	부동산 영역 정답표
1	슬세권 : 슬리퍼+역세권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짧은 거리에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환경)
2	맥세권 : 맥도날드+역세권 (가까운 거리에 맥도날드가 있는 환경)
3	벅세권 : 스타벅스+역세권 (가까운 거리에 스타벅스가 있는 환경)
4	청무피사 :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 (청약 만점자가 넘쳐나는 기이한 현상)
5	대팔대사 : 대충 팔고 대충 사 어차피 다 올라 (시골 집값마저 오르는 현상)
6	선당후곰 : 선 당첨, 후 고민 (일단 당첨되고 고민은 나중에)
7	마용성 : 마포구 + 용산구 + 성동구
8	금관구 : 금천구 + 관악구 + 구로구
9	노도강 : 노원구 + 도봉구 + 강북구
10	수용성 : 수원시 + 용인시 + 성남시

명불허전, 고전 영화를 소개합니다

넷플릭스, 애플TV, 디즈니플러스 등 OTT (Over The Top) 등장에 따라 편리해진 문화생활 이면에 문화가 너무 빨리 소비되고 있다. 기다림 없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작품을 즐길 수 있으며, 심지어 건너뛰기를 통해 장면을 넘기면서 시청하기도 한다. 수많은 작품들이 홍수처럼 불어나 그 인기를 확 얻었다 금새 잊혀진다. 하지만 급박한 변화 속에서도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작품들이 있다.

세대를 넘어 무한 재생되고 있는 고전 영화를 소개한다.

같은 작품도 시대에 따라 지니는 의미가 달라진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새로운 의미를 찾거나, 시간의 지남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아보자.



폭풍 속으로 Point Break

개요 : 액션, 범죄, 모험, 스릴러, 드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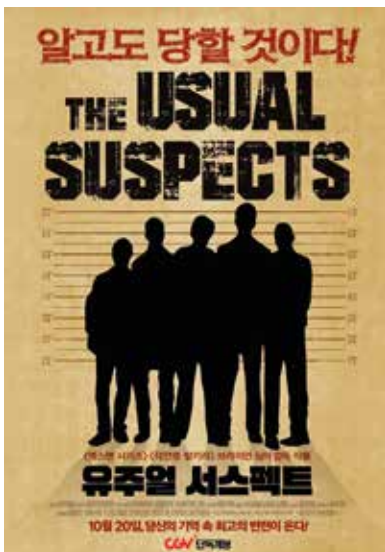
개봉 : 1991.12.21

감독 : 캐서린 비글로우

출연 : 키아누 리브스(FBI 특수요원 존 조니 유타), 패트릭 스웨이치(보디)

줄거리 : FBI 신입요원인 '조니유타'가 처음으로 맡게 된 업무는 완전 범죄로 유명한 은행강도 일당을 잡는 일이다. 이 사건의 유일한 단서는 이들이 서핑을 즐기는 무리라는 것뿐이다. 그래서 조니는 캘리포니아 해변에 서핑을 배우러 간다. 서핑을 배우면서 어떤 무리를 알게 되고 이들이 은행강도 일당일지 모른다는 증거를 발견한다. 이들의 탈출과 추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드디어 호주 해변에서 만나 체포를 시도하게 되는데...

타이밍, 때를 알고 기다리는 것은 힘들다. 특히 그 타이밍이 어쩌다 오는 한 번 뿐인 순간이라면 설렘과 긴장감으로 뒤덮혀 버릴 것이다. 이 영화에서는 크게 두가지의 시간이 부딪힌다. '서퍼의 타이밍' 그리고 '수사관의 타이밍' 두 기다림이 어떠한 결론으로 끝이 나는지는 마지막 순간에 알 수 있다. 기다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결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주얼 서스펙트 The Usual Suspects

개요 : 범죄, 스릴러, 미스터리

개봉 : 1996.01.27

감독 : 브라이언 싱어

출연 : 스티븐 볼드윈(마이클 맥매너스), 가브리엘 번(딘 키튼), 케빈 스페이시 (로저 버벌킨트)

줄거리 : 산페드로 부두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유일한 생존자인 '버벌' 로 부터 폭발사고의 유력한 용의자라 지목되었던 5인에 대한 진술을 듣는다. '버벌'의 진술로 들어나는 화려한 범죄 행각 중 전설 속 악마 '카이지 소제' 가 부각되면서 사건은 더욱 미궁에 빠지고 만다.

버벌은 쿠안(경찰)에게 사건의 전모를 말하고, 일당 중 딘 키튼이 몸이 불편한 자신을 탈출시키고 카이지 소제에게 살해당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쿠안은 버벌의 이야기를 종합한 결과 딘 키튼이 카이지 소제이고, 그가 버벌을 이용해 빠져나간 것이라고 말해준다. 버벌은 이 진실을 듣고 울분을 터뜨리고 경찰서를 나간다. 버벌이 나간 후 커피타임을 갖는 쿠안은 자신의 사무실을 둘러본다. 부안하고 싶은 충격적인 사실이 눈에 들어온다. 쿠안은 버벌을 잡기 위해 뒤쫓아갔지만, 그는 벌써 사라져버렸다. 휘몰아치는 반전은 너무나도 짜릿해서 별떡 일어설수 밖에 없다. 속도감 있는 시나리오와 배우들의 연기는 너무 소름이 돋는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질 수 있다!



블레이드 러너 Blade Runner

개요 : SF, 액션, 드라마

개봉 : 1982년

감독 : 리를리 스콧

출연 : 해리슨 포드(릭 데커드)

줄거리 : 핵전쟁 이후 인구는 다른 행성에 식민지 개척의 필요성을 느낀다. 21세기초 타이렐사는 복제인간을 만들었고 이들이 식민지 개척에 사용되는데 반란이 일어나면서 복제인간들의 지구 출입은 금지되었다. 하지만 복제인간 4개 개체가 지구로 잠입하면서 사건이 일어난다. 은퇴한 블레이드 러너 데커드는 지구에 잠입한 복제인간들을 찾아 제거한다.

1982년 특별한 컴퓨터 그래픽 기술없이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그려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그 시절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확립할 수 있었다는 것은 리를리 스콧이 얼마나 천재적 감독인지 알게 해준다. 인간과 복제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준다. 심지어 복제인간을 제거하기 위해 투입된 블레이드 러너 데커드 역시 그가 인간인지, 복제인간인지 영화를 보는 내내 확신을 할 수 없다.



스타워즈 시리즈 (에피소드 1편 ~ 6편) Star Wars

개요 : SF, 모험, 액션, 판타지

개봉 : 1987년 ~

감독 : 조지 루카스

출연 : 마크 해밀(루크 스카이워커), 해리슨 포드(한 솔로), 캐리 피셔(레이아 공주) ...

줄거리 : 에피소드 1,2,3 편은 다스베이더가 될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유년기와 청년기 그리고 다스베이더가 되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에피소드 4,5,6편은 아나킨과 아미달라여왕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루크 스카이워커와 레이아공주의 만남부터 시작해 제국군과의 대립이 그려진다.

총 6편으로 구성된 스타워즈는 1980대 당시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스타워즈 에피소드 4,5,6을 먼저 만들어 개봉하고 2000 년대에 들어서 에피소드 앞 부분인 1,2,3을 제작하여 개봉하였다.

만일 개봉 순서대로 보게된다면 그 유명한 "I am Your Father" 의 감격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반드시 개봉 순서가 아닌 에피소드 순서대로 감상하기를 부탁한다.

에피소드 1,2,3에서는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아미달라여왕을 만나 다스베이더가 되는 과정이 그려진다. 특히 무스타파 행성에서 아나킨과 오비완이 싸우면서 오비완에게 하는 대사 "you underestimate my power" 에서 아나킨의 원망, 증오, 후회 등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그가 왜 다스베이더가 될 수 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게 된다. 에피소드 4편부터는 다스베이더의 쌍둥이 자녀 루크와 레이아 공주가 등장한다. 루크와 레이아가 힘을 키우며 제국에 대항하면서 루크는 다스베이더의 내면의 선함을 이끌어내며 제국의 몰락을 가져온다.

흡파 흡파 다스베이더의 숨소리가 웃기게만 들릴지 모르지만 이 6편의 영화를 제대로 시청하고 나면 그 힘든 숨소리에 수만 가지의 의미가 있음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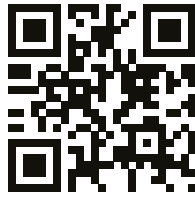
다스베이더 마지막 가는 길에 위로의 말을 전한다. May the force be with you.

발행일
2021년 10월 4일

발행처
주식회사 세안텍스 / 세안에이앤에이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30길 13 세안빌딩

문의
seanana@seantecs.co.kr
02-3413-9331



SeAn Group